

한국의 불교생태학 연구 동향*

박 경 준

【주제분류】 종교학, 불교학

【주요어】 환경위기, 연기사상, 응용불교학, 불교생태학, 생태변증론

【요약문】 약 60여 년 전부터 지구의 환경 위기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이 경종을 울려 왔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생태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 불교학계에서도 1980년대 이후 불교의 연기사상과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주로 응용불교학의 한 분야로서의 ‘불교생태학’에 관한 것이지만, 융합학문 또는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한국 불교계에서 환경과 생태 및 생명에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에코포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에코포럼은 불교와 생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생태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10월 창립되었다. 불교생태학 관련 단독 저술도 몇몇 출간되었다. 그 가운데 김중욱의 불교생태철학(2004)과 서재영의 선의 생태철학(2007)은 불교생태학의 기본 이론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불교생태학은 ‘생태 변증론’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못 생명과 자연물에 다가갈 것인가 하는 실천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논문은 2011년 6월 불광연구원과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된 논문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불교생태학』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지구촌의 환경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경종은 약 60여년 전 페어필드 오스본(Fairfield Osborne)의 약탈당한 우리의 행성(Our Plundered Planet)에서 울리기 시작하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뒤이어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여사와 슈마허(E.F. Schumacher) 등이 서구 팽창주의 경제에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서 “이대로 간다면 인류는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사람은 다니엘 맥과이어(Daniel Maguire)이다.

하지만 국가의 개발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새만금 간척 사업,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의 굵직한 굵직한 국책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4대강 개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교인과 불교 단체 및 환경단체의 저항도 적지 않았다. 특히 수경수님의 3보1배, 지울스님의 100일간의 단식, 도법스님의 생명평화탄발순례 등은 주목할 만하다. 급기야 지난 해(2010) 5월 31일에는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의 한 낙동강 제방에서 문수스님이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등의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을 결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학계에서도 불교의 근본인 연기사상과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주로 실천응용불교학의 한 분야로서의 ‘불교생태학’에 관한 것이지만, 융합학문 또는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에 관한 것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교생태학’과 관련하여 그간에 이루어진 성과와 그 흐름을 정리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흐름

1.

서력 기원 4세기 말엽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고구려에서는 승랑(僧朗)이 삼론학(三論學)을 집대성하면서 불교학의 기초를 다졌다. 그 토대 위에서 특히 신라에서는 눈부신 교학 연구가 행해졌는데, 그 결과 수많은 저술들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원효(元曉)는 85여종 180여 권을, 경흥(憬興)은 40여종 270여 권을, 태현(太賢)은 50여종 120여 권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불교학 연구의 전통은 고려시대를 거쳐 송유억불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퇴색된다. 한국 근대 불교학은 1906년 명진학교(明進學校)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혜화전문학교 등을 거쳐 1953년 동국대학교로 승격되면서 특히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¹⁾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 전국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불교학, 인도철학 연구자가 늘어나고 불교 종립대학들도 생겨나면서 지금은 불교학 연구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동안 불교학 연구는 주로 불교 교리와 역사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전공 분야도 상당 기간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의 셋으로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학문의 체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 등과 같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세미나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불교학 연구의 경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주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경향에 대한 전망과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 및 방향 제시 등이 논의되었다. 이런 과정을

1) 동국대학교,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 불교문화연구원, 1994, pp.148-150.

거치면서 불교학의 전공분야는 자연스럽게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 불교학의 셋으로 나뉘게 된다. 응용불교학은 실천불교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열어 놓았으며, 불교생태학은 바로 이 응용 불교학의 기반 위에서 출범한 것이다.

2.

한국 불교계에서 환경과 생태 및 생명에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불교생태학’이라는 용어는 2000년 이후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불교생태학의 연구는 2004년 10월 ‘에코포럼’이 창립되면서부터 본격화된다. ‘에코포럼’은 불교와 생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생태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과 연구 교류를 위해 창립되어 거의 매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발표된 발제문들은 현재 네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006년에는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8개국 21명의 관련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²⁾ 이러한 가운데 점차 더 많은 불교학자들이 불교생태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Ⅲ. 불교생태학 연구 현황

1.

생태학(ecology)이란 말은 원래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코(eco)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온 것으로 ‘집’, ‘가정’, 또는

2)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서울: 아카넷, 2006)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음.

‘살기 위한 공간’,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원적 의미를 근거로 헤켈은 ‘자연이라는 가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생태학의 소박한 의미로 규정한다. 또한 헤켈이 ‘생태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가 유념했던 것은 다윈(Darwin)이 제시한 ‘자연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이었다. ‘자연의 경제학’은 ‘동물과 그 주변의 유기적이고 무기적인 환경과의 총체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정의된다.³⁾ 헤켈은 이 개념을 ‘동일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유기체들의 상호 연관 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생태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⁴⁾ 따라서 오늘날 생태학은 흔히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자연과학적 생태학은 ‘생태 위기’의 시대에서는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적 생태학은 오늘날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을 해명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경제제도, 정치제도, 자연에 대한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문제 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태사회학, 생태정치학, 환경경제학, 생태역사학, 생태문학, 생태철학, 생태윤리학 등의 대두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한다. 나아가 생태학은 현대의 모든 학문을 포함하는 통합학문 내지는 하나의 문화적 경향을 의미하게까지 되었다. 불교생태학 역시 이러한 생태학과 인문학의 만남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⁵⁾

‘불교생태학’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협의의 불교생태학’이다. 이것은 환경 및 생태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응용불교학의 하위 학문이다. 이것은 불교교리와 사상을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며, 동시에 불교 문헌과 전통

3) Stanley Donson, 노태호 외역, 생태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2000, p.2.

4)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편,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6, p. 493.

5) 위의 책, pp.493-494.

속에 함축되어 있는 생태학적 개념과 내용들을 가려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불교학이다. 이 협의의 불교생태학은 불교생태사상(The Buddhist Thought of Ecology) 또는 불교생태론(The Buddhist Theory of Ecology)으로서 한마디로 ‘생태불교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Eco-Buddhology’ ‘Buddhist Ecology’ 또는 ‘The Buddhist Studies of Ecology’ 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의 불교생태학은 그리스도교 신학 중 환경신학(Ecotheology)에 상응한다.⁶⁾

그 둘째는 ‘광의의 불교생태학’이다. 이것은 ‘불교와 생태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학문’(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Buddhism and Ecology)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종욱은, 불교생태학은 “학제적 연구를 통한 창발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철학적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그리고 생태계의 조화와 생명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⁷⁾

그는 불교생태학의 전개 방향에 대해 <학문 내적 통합으로서의 생태학 연구>와 <학문 간 교류로서의 생태학 연구>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에 대한 연구로 16분야를, 후자에 대한 연구로 5분야를 예시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⁸⁾

<불교생태학>

	불교환경윤리학
불교생태철학	생태종교학
	비교생태철학

6) 졸고,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의 발전적 추진방향』, 불교학보 제42집, 2005, pp.240-241.

7)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4, p.31.

8) 위의 책, pp.31-37 참조.

불교생태인문학	생태분학
	생태역사학
	생태미학
불교생태사회과학	생태법학
	생태정치학
	생태사회학
	생태교육학
불교생태경제학	환경경제학
	생태경영학
	생태행정학
불교경관생태학	생태자연과학
	생태자원학
	생태건축학

이 분류는 학제적 연구 또는 융합학문으로서의 불교생태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김종욱은 이 모든 연구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앞으로 불교생태학 연구의 기본 지침이 될 것으로 본다.

2.

2003년 초, 던컨 류켄 윌리엄스(Duncan Ryūken Williams)가 작성한 「불교와 생태학」 관련 문헌 목록은 약 30여 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적지 않음을 말해 준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물을 더한다면 그 분량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역시 하버드대 세계종

교연구센터에서 출간한 불교와 생태학 이다.

하버드대학교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에 걸쳐 ‘종교와 생태학’에 관한 일련의 포럼이 개최된바, 그 첫 번째 주제가 ‘불교와 생태학’이었다. 이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를 비롯하여 유교, 신도(神道), 힌두교, 토착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자이나교의 열 가지 세계종교사상에 나타난 생태학적 사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총10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Religions of the World and Ecology Series)’이다. 그중 불교와 생태학 (1997년 刊)은 ‘남방불교와 생태학: 태국의 경우’ ‘대승불교와 생태학: 일본의 경우’ ‘불교와 동물들: 인도와 일본’ ‘선불교: 문제점들과 전망’ ‘미국불교: 생태적 공동체 만들기’ ‘불교생태학적 세계관의 응용들’ ‘불교와 생태학에서의 이론적·방법론적인 쟁점들’의 7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부크넬(Bucknell) 대학의 메리 에블린 터커(Mary Evelyn Tucker) 교수를 비롯해 총 21명이 기고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출간된 불교생태학 연구 성과물 중 가장 광범위하고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교생태학에 대한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⁹⁾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릿쇼(立正)대학 불교학부 개설 50주년 기념 논문집인 불교와 환경 이 괄목할 만하며 2000년 도쿄에서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일본, 미국, 한국 등의 학자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로 산만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이토(伊藤瑞勲) 교수의 ‘불교환경윤리학 서설’¹⁰⁾은 매우 의욕적인 논문으로 평가된다.

9)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역, 불교와 생태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5, iv 참조.

10) 立正大學佛敎學部 편, 佛敎と環境, 東京: 丸善株式會社, 2000, pp.317-387.

3.

(1) 불교의 생명관 및 생명윤리 연구

계율과 불교윤리학 연구논저 목록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생명사상 또는 생명윤리에 관해 연구된 논문은(1985~2009, 학위논문 포함) 대략 100여 편이며, 단행본은 6권(번역 제외) 정도이다.¹¹⁾

불교의 생명사상 및 생명윤리 분야의 논의는 주로 고영섭, 꼭만연, 김성철, 박병기, 신성현, 안옥선, 우희중, 윤영해, 조용길, 한자경, 허남결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단행본으로는, 불교생명윤리정립위원회가 펴낸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 (2006), 우희중의 생명과학과 선 (2006), 한자경의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2008), 안옥선의 불교와 인권 (2008) 등이 있다. 에세이류이지만 도법 스님의 화엄경과 생명의 질서 도 눈에 띈다. 불교생명윤리정립위원회는 위 책에서 1)불교생명윤리, 2)생명조작, 3)낙태, 4)뇌사·장기이식·안락사, 5)사형제도 등에 대해 취급하고 있다. 우희중은 그의 책 속에서 ‘안수정등과 생명 조작’ ‘근대적 생명 과학과 탈근대적 불교’ ‘불교, 생명과학 그리고 자본주의’ 등의 불교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자경은 그의 책 제3장에서 ‘불교의 생명관’ ‘불교의 생태학’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안옥선은 그의 책 제8장에서 ‘인권에서 동물존중으로’의 주제를 다룬다.

허남결 번역의 불교생명윤리학 (Damien Keown 저)과 불교응용윤리학 입문 (Damien Keown 저)도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명사상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논문들은 대략 다음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주제에 대한 주요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1) 불교의 생명관—이중표, 윤영해, 한자경

11) 동국대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 계율과 불교윤리학 연구 논저 목록, 2009, pp.144-165 참조.

- 2) 불교의 생명윤리 및 생명복제-허남걸, 조용길, 김성철, 고영섭, 광만연, 박병기, 우희종, 정승석, 최인숙
- 3) 동물해방 및 육식문제-허남걸, 신성현, 안옥선, 고영섭
- 4) 식물의 증생성-우제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웰빙 바람이 불고 있고 채식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물해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불교계에서도 육식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 불교생태학 연구와 저술

앞에서 참고한 계율과 불교윤리학 연구논저 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교생태학 관련 연구 논문은 대략 60여 편(1992~2009, 학위논문 포함)이고, 단행본은 15권 정도에 이른다. 단행본 중 10권 정도는 편저로서 권마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 외 단행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불교생태학 관련 학술세미나의 자료집 속에도 많은 논문들이 숨어 있어서 이것을 단위 논문으로 환산한다면 논문 수는 거의 200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교생태학 관련 단독 저술로는 김종욱의 불교생태철학 (2004), 서재영의 선의 생태철학 (2007), 고영섭의 불교생태학 (2008), 백도수의 불교와 생태 (2004) 등이 있다. 이 중 불교생태철학과 선의 생태철학은 불교생태학의 기본 이론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두 저자는 계속적으로 불교생태학 연구를 주도해 오고 있는바, 이 두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불교생태철학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부: 불교생태철학의 기초

1. 불교와 생태학의 만남
2. 생태계의 위기와 생태학적 사성제

제2부: 불교생태철학의 전개

1. 농업적 생명, 산업적 생명 그리고 불교생태학적 생명
2. 자연의 도덕적 지위와 불교적 생태윤리
3.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불교생태철학

제3부: 근대성의 성찰과 불교생태철학

1. 근대의 여명
2. 삼중혁명과 근대의 형성
3. 근대성의 철학적 기초
4. 근대성에 대한 불교생태학적 비판
5. 포스트모더니티와 불교생태철학

제4부: 하이데거와 불교생태철학

1. 퀴지스와 다르마-하이데거와 불교의 자연관 비교
2. 산은 산이다-하이데거와 불교 그리고 생태철학

제5부: 불교학자와 생태학자의 대화

1. 생태학은 무엇이고, 불교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2. 생태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3. 상호의존성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저자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런 무한 질주의 과부하를 막는 길은 시스템 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통해 우리 모두가 느낌의 여유와 돌봄의 미덕과 살림의 가치 등을 회복하는 데 합의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이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일체법의 상호의존성(緣起)과 거기에 함축된 비실체성(空性)을 통찰함으로써 중생들 서로 간의 상호존중(慈悲)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호의존성(연기)-비실체성(공성)-상호존중성(자비)’으로 이어지는 이 도식이야말로 필자가 생각하는 불교생태철학의 기본 구조인바, 이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량의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¹²⁾

12) 김종욱, 앞의 책, ii

이 책은 목차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협의의 불교생태학’ 보다는 ‘광의의 불교생태학’에 더 가까이 서 있다. 그것은 불교학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그의 학문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의도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우리는 그가 책 제목을 불교생태학 이라 하지 않고 불교생태철학 이라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제시한 ‘불교생태학 학문 분류표’에 의하면 ‘불교생태철학’은 ‘학문간 교류로서의 생태학’ 연구 분야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는 불교생태철학의 개념에 대해 직접 “불교환경윤리학과 생태종교학과 비교생태철학의 성과들을 불교적 생태철학이라는 시각에서 통합한다. 그리하여 동서고금의 철학과 종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 위에서, 생태계 위기의 진정한 근원을 불교철학적으로 탐색하고, 그 처방의 단서를 인류 보편의 사유 구조 속에서 제시한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갖지만, 앞으로 ‘협의의 불교생태학’ 또는 ‘생태불교학’에 대한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생태학적 사성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 범위를 넓혀 불교의 다양한 사상들을 생태학적으로 재해석해 갈 것으로 본다.

선의 생태철학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그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선생태학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장: 선과 생태학의 철학적 접목
- 제3장: 법계의 상호관계성과 생태계의 시스템
- 제4장: 선(禪)의 자연적 삶과 동물과의 공존
- 제5장: 식육의 문제와 선의 생명윤리
- 제6장: 선의 생물평등주의 사상
- 제7장: 선의 불성관(佛性觀)과 생명의 내재적 가치
- 제8장: 무정(無情) 설법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
- 제9장: 선의 자연관과 ‘살아있는 지구’

제10장: 맺음말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선의 생태철학’에 대한 연구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환경위기는 과학적 처방 못지않게 인간 개개인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삶의 양식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점에서 생태철학과 선사상의 공통분모가 성립된다. 선사상 역시 존재에 대한 참다운 안목을 여는 것과 함께 건전한 삶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사들이 제시하는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보편타당성을 지녔다면 생태위기라는 현대적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선사상에는 불교학자와 생태학자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풍부한 생태적 전통과 상상력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같은 가능성들을 현실화하고 선사상이 생태철학의 소중한 사상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표로 삼았다¹³⁾

서재영의 연구는 심층 생태학 또는 근본 생태론(Deep Ecolog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법계라는 개념이 초기 아함에서 선사상에 이르기까지 전체 우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보고, 법계와 생태계를 접목한다. 그는 법계와 생태계는 공히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된 세계이며, 상호작용하는 세계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언명한다.¹⁴⁾ 또한 그는 불성(佛性)의 개념을 통해 모든 생명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지할 수 있는데, 불성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과 식물, 무정물에까지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계와 불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무정물도 법을 설한다는 이른바 ‘무정설법(無情說法)’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결국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제6장 ‘선의 생물평등주의 사상’이라든가 제4장 ‘선의 자연적 삶과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논의도 이러

13) 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7, p.3.

14) 위의 책, p.27.

한 철학적 또는 세계관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계’나 ‘불성’의 개념이 선사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화엄 사상과 여래장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禪) 생태학’은 ‘교(敎) 생태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선전(禪典) 속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함은 물론 중국선 및 한국선의 특징적 ‘이념’과 ‘정신’들을 생태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접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저자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선의 생태철학’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체적 일상생활과 접목될 수 있는 생태적 삶의 양식과 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불교생태학 연구의 전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생태와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적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목정배는 1992년 『자연환경과 불교 교설과의 관계』(한국불교학 제17집)를 발표하여 국내의 불교적 환경윤리 정립에 기초를 놓았고, 계속해서 『과학과 불교윤리-과학시대의 윤리』(1995), 『계율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1997) 등을 발표하였다. 오형근은 유식사상을 바탕으로 물질과 생명의 문제를 연구하였다.¹⁵⁾

이러한 불교학계의 관심은 1995년에 열린 ‘제8회 한·일 학술교류회의’로 이어졌다. 이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생명과 환경윤리’였으며, 이 회의에는 불교학자와 선학자뿐만 아니라 환경공학과 및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참여하고 있어서, 규모는 작지만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97년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불문연은 2003년 5월 ‘불교생태학,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불교생태학 연구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기에서는 ‘현대 생태사상의 경향과 전망’(구승회) ‘불교생태학의 현주소’(류승주)

15) 류승주, 『불교생태학의 현주소』, 불교학보 42, p.195 참조.

‘생태불교의 필요성과 가능성’(최종석)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의 발전적 추진방향’(박경준) 등이 발표되었다. 동년 10월에는 좀 더 큰 규모의 불교생태학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자연, 환경인가 주체인가’였고 참여자와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홍기삼-기조 연설

박경준-불교적 관점에서 본 자연

김종욱-자연의 도덕적 지위와 불교적 생태윤리

장희익-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

최재천-다윈, 불교에 귀의하다: 불교와 진화생태학의 만남

유훈우-동양철학에서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최인숙-서양철학에서 본 자연

윤영해-불교와 기독교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2004년 10월에는 그 범위를 넓혀 ‘과학기술의 생태학적 혁신 모색-희망의 생태학, 길도 숲도 필요하다’는 주제로 불교생태학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여기서는 생태도시의 조성 기법, 환경산업의 콜로이드 관련 기술, 토양오염 정화 기술, 생활폐기물의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이 세미나는 융합학문으로서의 불교생태학을 위한 또 다른 시도이자 준비 작업이었지만, 그 이후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에는 ‘불교와 동물의 권리-불교생태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허남걸) ‘동물 해방과 불살생’(신성현) ‘선사들의 삶을 통해 본 동물의 도덕적 지위’(서재영)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6년 5월 25일~26일에 걸쳐 불문연은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4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 지식기반사회와 환경문제

- 지식기반사회와 생태이성의 신지평(황태연)
- 우리가 전지구적 환경변화에 맞서 중도를 걸을 수 있을까(폴 플렉)
- 동북아의 생태위기와 환경협력(박수진)
-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김종욱)
- 불교사상과 지역 자립(나카무라 히사시)

제2분과: 불교생태학과 서양 사상

- 경관미학의 환경론(이안 해리스)
- 포스트모더니티와 생태불교학(윤영혜)
- 심층생태학과 불교의 생태적 지혜(안옥선)
- 실타래 풀기-불교와 에코페미니즘(리타 그로스)
- 불교와 일반시스템 이론(이중표)

제3분과: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

- 지식정보사회와 자연세계에 대한 불교적 네트워크 이론(양형진)
- 덕의 윤리학과 환경(데미언 키온)
- 전통사찰에 대한 경관생태학적 조망(이도원)
- 한국문학과 불교생태학의 관련 양상(홍신선)
- 종교와 서양 환경윤리학(유진 하그로브)

제4분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교생태학

- 현대의 욕망확대 구조와 불교의 욕망이론(홍윤기)
- 지속가능한 발전과 불교경제학(박경준)
- 빈곤과 불교적 생활방식-세계화 경제에 맞선 불교적 대응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 선적 깨달음과 생태학적 각성(진월)
- 도가의 천인관계론과 현대 환경 윤리가치의 구성(쉬 샤오 위에)
- 심층생태학과 심층문화, 그리고 위기사회-평화와 불교(요한 갈통)

2008년 불문연은 ‘육식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초기불교에 있어서의 육식의 긍정』

(岩井昌悟), 「육식에 대한 상좌부의 관점」(Asanga Tilakaratne), 「삼매수참(三昧水懺)의 육식관」(黃夏年), 「한국불교에서 계율과 육식」(고영섭), 「환경윤리의 관점과 육식문화의 반성」(허남결), 「육식과 질병 발생 및 인간수명에 대한 고찰」(김동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육식과 그 의미」(박정진)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체적으로 육식문화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것이 불교정신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 에코포럼의 연구 추진

2004년 10월, ‘광의의 불교생태학’ 정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교류 및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에코포럼’을 창립시켰다. 다음은 에코포럼 창립취지문의 일부분이다.

생태와 환경에 관한 의제는 고도로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일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적 요청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문적인 탐구와 진지한 성찰을 생산적으로 결합하기 위하여, 불교와 생태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교류의 마당인 <에코포럼>를 결성하였습니다.

창립 당시 에코포럼의 공동대표는 고 건(전 국무총리), 권태준(서울대 명예교수,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홍기삼(동국대 전 총장)이었고 초대 운영위원장은 박경준(불교학과 교수)이었다.

정례 에코포럼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 5회를 1기로 하여 거의 매월 개최되었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발표를 하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3~5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청중의 질문과 의견 개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기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주제: 시스템과 상호의존성(2004년 2학기)

제2기 주제: 욕망과 생명(2005년 1학기)

- 제3기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2005년 2학기)
- 제4기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2006년 1학기)
- 제5기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2006년 2학기)
- 제6기 주제: 희망의 공동체(2007년 1학기)
- 제7기 주제: 희망의 공동체(2007년 2학기)
- 제8기 (2008년 5월~11월)

이렇게 하여 에코포럼은 26회에 걸친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인 ‘쟁점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쟁점심포지엄은 그동안 5회 개최되었으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주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2004, 12)
- 제2회 주제: 천성산이 제기한 문제와 그 해법(2005, 6)
- 제3회 주제: 지속가능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2006, 12)
- 제4회 주제: 환경·에너지 정책을 말하다(2007, 12)
- 제5회 주제: 촛불과 줄타동시를 생각한다(2008, 8)

정례포럼과 쟁점심포지엄에 참여한 연인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서 무려 162명에 달한다. 이것은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좌장)를 포함한 숫자이며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쌓인 발표 원고들은 동국대출판부에서 생태학총서로 출간하였으며, 현재 4권에 이른다. 책 제목은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1)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욕망 (2) 지속가능발전—이해와 실천적 전략 (3) 생명의 이해—생명의 위기와 길 찾기 (4)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소주제들은 번잡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바대로 생태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예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정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IV. 불교생태학 연구의 과제와 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 불교생태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10년이 채 안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짧은 기간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물이 산출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있는 실천적 내용들을 여러 불전 속에서 발췌하여 수집 정리하고 그 자료집을 발간한다. 현재로서는 윤영해 등이 펴낸 불교생태학 연구를 위한 원전자료 수집 및 정리 연구: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가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집이 아닌가 한다. 물론 발췌된 내용들이 곧장 그대로 생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광산에서 채굴한 원광을 제련하면 우리에게 유용한 금속이 되듯이, 그 발췌 내용들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잘 활용한다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둘째, 불교사상과 생태학의 접목, 또는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재해석 작업을 더욱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시도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불교교리의 입장에서 총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초기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관, 유가유식, 정토, 화엄, 천태, 선, 밀교 등의 사상, 그리고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불교사상에 대한 각론적인 해석도 포함한다.¹⁶⁾

셋째, 유교, 도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여러 세계종교의 생태사상과 불교의 그것과를 비교 연구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리랑카, 타일랜드, 미얀마, 베트남, 대만, 일본 등에서의 불교전통 속에 깃들여 있는 환경친화적·생태지향적 불교문화 및 생활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연구한다.¹⁷⁾

16) 박경준,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의 발전적 추진 방향』, 불교학보 42, 2005, p.245 참조.

17) 같은 책.

넷째, 지금까지의 불교생태학 연구는 주로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풍토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구승희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생태학적 불교는 무한한 것보다는 유한한 것에 대하여, 우주적인 것보다는 지구적인 것에 대하여, 모든 생명계와 무생물계에 대한 공흠보다는 사람에 대하여, 자손만대의 아름다운 자연보다는 지금·여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¹⁸⁾

불교생태학의 궁극적 목표는 ‘환경생태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2001년 발족 후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불교환경의제21(초안)은 5개 부문(불교환경기본의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3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백서 발간과 함께 실천기획단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불교생태학은 이론정립만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 및 행동규범을 만들어 내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의 수행과 행동규범만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적 행동양식, 정치사회 경제의 구조적·제도적 개혁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불교생태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경증(經證)에 안주하지 말고 이증(理證)까지 추구해야 한다. 중아함은 “나의 제자들은 심지어는 여래까지도 잘 관찰하여, 여래가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처럼 불교는 교조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석존의 가르침 중에 이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어떤 문제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인이나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객관적인 논리로

18) 구승희, 『현대생태사상의 경향과 전망』, 불교학보 42, 2005, p.183.

논증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텍스트의 참다운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콘텍스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의 근본 사상인 연기법을 상호의존성(相依性)으로 해석할 때, 그 근거를 초기불교의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에서 찾으면 안 된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에 주장했듯이 초기불교의 연기법은 구체적인 의의를 갖는다. 실존적·심리적 모든 고통(老死憂悲苦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므로,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붓다가 연기법을 깨달은 후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不死)를 얻었노라”고 선언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셋째,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불성사상과 ‘무정물(無情物)도 법을 설한다’는 무정설법에 대한 해석을 안이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그 근거로 인용하는 사상이다. 조성택은 이에 대해 “불성론의 맥락에서 볼 때 무정물인 자연세계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불교적 외경심을 표현하는 철학 사상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인식세계를 표현하는 일종의 레토릭이다.”¹⁹⁾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불성론(佛性論)’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 명쾌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더욱 정치한 이론 작업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또한 생태 변증론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생명과 자연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새롭게 그 생명과 자연물에 다가갈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변증론자들은 생태비평가들의²⁰⁾ 주

19) 조성택, 『불교와 생태학: 그 가능성과 한계』, 철학연구 29, 고려대철학연구소, 2005, p.315.

20) 도널드 K. 스웨터, 『불교생태철학의 평가와 검토』, 학제적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7, p.313 참조. 스웨터는 불교생태학연구의 흐름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불교의 환경론은 불교적 세계관의 자연스런 확장이라고 주장하는 ‘생태변증론’, 불교적 세계관의 환경윤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생태비평론’, 불교환경윤리는 불교의 세계관과

장에 더욱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비판은 좋은 자극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더욱 단단한 불교생태학 이론을 확립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V. 나오는 말

지난해(2010년) 3월,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는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불교와 생명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불교계 내외의 전문가 32명을 비롯하여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구체적인 현안을 불교생태학적 입장에서 조명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코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를 시도해왔다. 그 바탕에는 불교 이념이 자리하고 있지만 보편적 진리를 지향하는 불교의 열린 정신과 연구의 합목적성 때문에 별다른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사실이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전문가들이 워크숍 등을 통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생태학은 그 학문의 특성상, 이론가와 활동가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불교활동가들은 이론에 힘입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이론가들은 현장적 지식의 획득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도 불교의 텍스트들과 교의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생태구성주의’, 실천 가능한 불교환경윤리는 불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추론되기보다는 불교윤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태도덕주의’, 가장 효과적인 불교환경윤리는 특정한 문맥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태맥락주의’가 그것이다.

끝으로 생태환경 문제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문제이다. 따라서 생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활동과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고영섭, 불교생태학, 불교춘추사, 2008.
-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2004.
- 동국대학교 편,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 불교문화연구원, 1994.
- 동국대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편,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동국대출판부, 2006.
- 동국대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편, 현대사회비판과 불교생태학, 동국대출판부, 2006.
- 동국대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편,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동국대출판부, 2007.
- 동국대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 편, 계율과 불교윤리학 연구논저 목록, 동국대학교, 2009.
-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편, 생명의 이해—생명의 위기와 길 찾기, 동국대출판부, 2011.
- 백도수, 불교와 생태, 해조음, 2004.
- 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동국대출판부, 2007.
- 에코포럼 편,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동국대출판부, 2006.
- 에코포럼 편,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욕망, 동국대출판부, 2006.
- 에코포럼 편, 지속가능발전—이해와 실천적 전략, 동국대출판부, 2006.
- 우희중, 생명과학과 선, 미토스, 2006.
- 헬레나 노르베르—호지 외,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아카넷, 2006.
- 立正大學불교학부 편, 佛敎と環境, 丸善株式會社, 2000.
- Damien Keown, 허남결 역, 불교와 생명윤리학, 불교시대사, 2000.
- Damien Keown, 허남결 역, 불교응용윤리학입문, 한국불교연구원, 2007.
- Joanna Macy, 이중표 역, 불교와 일반시스템 이론, 불교시대사, 2004.
- Stanley Donsen, 노태호 외역,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2000.

- 구승희, 「현대생태사상의 경향과 전망」, 불교학보 42, 2005.
- 남궁선, 「공업의 사회성에 대한 생태철학적 해석」, 한국불교학 46, 2006.
- 류승주, 「불교생태학의 현주소」, 불교학보 42, 2005.
- 박경준,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의 발전적 추진 방향」, 불교학보 42, 2005.
- 이재수, 「응용불교학의 성과와 과제」, 불교평론 41, 2009.
- 조성택, 「불교와 생태학: 그 가능성과 한계」, 철학연구 29, 2005.

